



미 증시, 셧다운 우려 완화에도 공급망 문제, 기업 실적 부진 우려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30 일 (목)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 소식들에 의해 오전 강세를 모두 반납하며 하락 마감(다우 -1.59%, S&P500 -1.19%, 나스닥 -0.44%, 러셀 2000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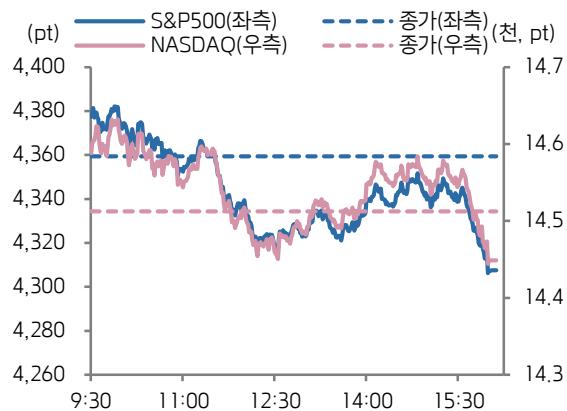
오전 미국 의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12 월 3 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하며 10 월 1 일 (금) 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S&P500 지수는 장 초반 0.5% 상승 출발했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 지표 부진과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전환.

장중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의 하원 증언은 지난 28 일 상원 증언에 비해 새로운 내용들은 없었지만, 오히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인플레이션 언급으로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 파월과 옐런은 부채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 이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곧” 테이퍼링 시작과 2022 년 금리 인상 가능 발언은 테이퍼링 부담도 자극시킴.

아시아 증시에서 발표된 중국 PMI 지표는 차이신 제조업 예상치 부합, NBS 서비스업 PMI 개선 등 혼조된 결과를 보였지만, 미국 지표들은 대부분 둔화 흐름을 이어감. 신규 주당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시장 예상치였던 33.5 만명 보다 높은 36.2 만 명으로 발표되었고, 9 월 시카고 연은 PMI 는 전월 66.8pt 에서 64.7pt 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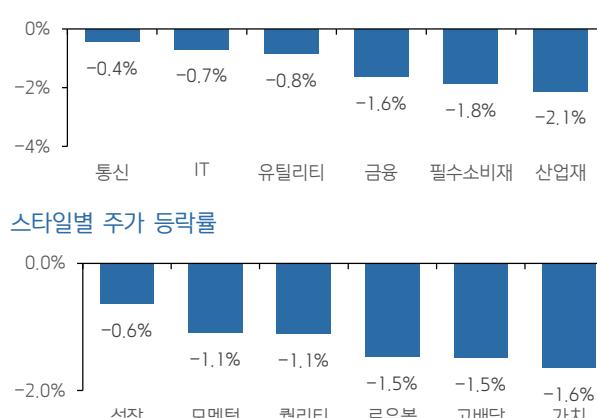
이날 전업종 하락. 그중 산업재(-2.1%), 금융(-1.6%), 소재(-1.6%) 등 경기민감업종들이 하락을 이끌었지만, 필수소비재(-1.9%), 부동산(1.6%) 등 일부 방어주들도 낙폭이 컸음. 대형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IT, 커뮤니케이션은 높아진 안전자산 선호심리 속에서 하락폭이 크지 않았음.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특징주

배드바스앤비욘드(-22.1%): 실적은 매출 19.9 억 달러, EPS 0.04 달러로 예상치 20.6 억 달러와 0.52 달러 큰 폭 하회. 실적 부진 요인은 8 월 방문고객 급감과 서플라이체인 차질. CEO 트리튼은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여름 공급망 차질로 비용이 증가했고 마진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언급. 이에 따라 올해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

카맥스(-12.6%): 매출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EPS 는 1.72 달러로 예상치(1.90 달러) 하회. 중고차 판매 매출이 전년대비 6.2% 상승하며 예상치 였던 7.1%에 비해 부진.

맥코믹(-3.2%): 식품 첨가제 업체 맥코믹의 분기 실적은 EPS 0.8 달러로 예상치 0.08 달러를 크게 상회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유통 차질로 2021년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머크(+0.0%): 악셀러론 파마(-0.7%)를 주당 180 달러로 총 115 억 달러에 현금으로 인수할 것이라는 발표했지만 시장 조정으로 오전장 2%정도의 상승폭 모두 반납.

주요 지수					
주식시장	가격	변화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07.54	-1.19%	USD/KRW	1,184.08	+0.17%
NASDAQ	14,448.58	-0.44%	달러 지수	94.26	-0.08%
다우	33,843.92	-1.59%	EUR/USD	1.16	-0.17%
VIX	23.14	+2.57%	USD/CNH	6.45	-0.44%
러셀 2000	2,204.37	-0.94%	USD/JPY	111.28	-0.61%
필라. 반도체	3,258.09	-0.1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002.42	-1.69%	국고채 3년	1.590	+0bp
유럽, ETFs	4,048.08	-0.79%	국고채 10년	2.237	+3.5bp
			미국 국채 2년	0.278	-1.2bp
MSCI 전세계 지수	713.99	-0.21%	미국 국채 10년	1.484	-3.3bp
MSCI DM 지수	3,028.75	-0.1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51.28	-0.76%	WTI	75.08	+0.33%
MSCI 한국 ETF	80.66	+0.75%	금	1758.2	+2.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5.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미국발 악재에 따른 국내 증시에서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 가능성
- 오전 9 시 발표 예정인 한국의 수출(예상 16.3%YoY) 결과
- 미국 소비주 급락이 국내 소비주들에게 충격을 전이시킬 수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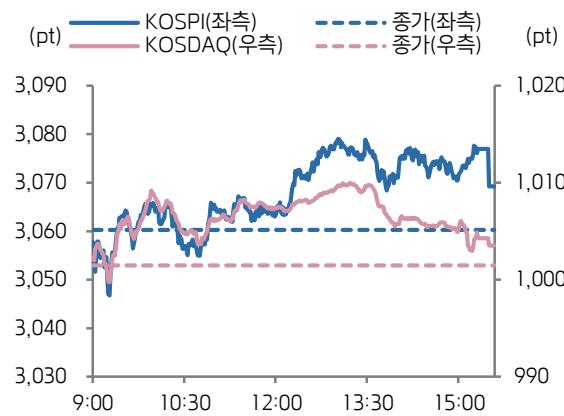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주요국 경제는 병목현상, 중국의 전력난 등으로 공급망 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생활용품업체 배드베스앤비욘드의 주가가 20% 넘게 폭락한 것도 컨콜을 통해 공급차질로 인한 비용 증가 및 마진 감소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 데이터 분석업체 팩트셋의 미국 S&P500 2분기 컨콜 분석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수가 224 개로 데이터 집계 이후 10년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점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음. 이처럼 연초부터 발생한 공급차질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일시적 고 인플레이션이 아닌 추세적 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시 말해, 미국 10년물 금리가 1.5%대를 하회하긴 했으나, 추가적인 재급등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공급 차질 지속 → 인플레이션 급등 → 소비자 실질 구매력 위축 및 기업 이익 둔화 →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등 조기 긴축” 등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을 남겨 놓았기 때문.

또 다른 시장 불안을 유발했던 미 정치권 문제의 경우, 임시예산안을 가결함에 따라 12 월 3 일까지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셧다운 문제는 해소. 그러나 10 월 18 일 이전 부채한도 상향(or 유예)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함. 물론 부채한도 상향 실패에 따른 미국 디폴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인플레이션, 연준 긴축, 중국 전력난 및 헝다그룹 사태 등 여러 악재성 재료들이 있는 만큼, 미국의 정치 노이즈가 시장 변동성을 추가로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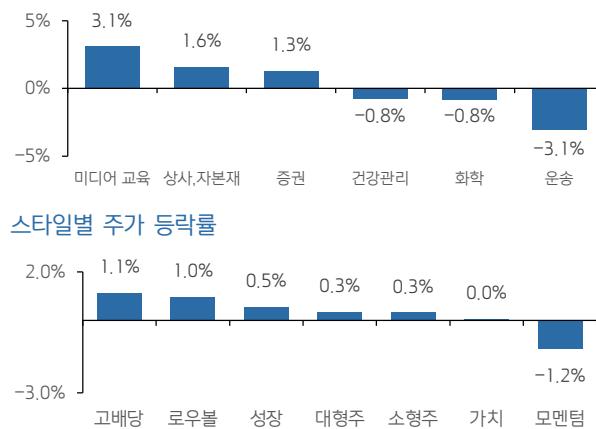
전거래일 반등에 성공했던 한국 증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재차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적 시즌 진입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매크로 영향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점이 매크로 상 악재가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금일 장 시작과 동시에 발표되는 한국의 9 월 수출(예상 16.3%YoY, 전월 34.9%) 결과가 호조세를 보일 경우, 3 분기 실적 기대감을 높이면서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지어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